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확전에 일조하는 범죄 행위다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서방 대 러시아, 제국주의 간 전쟁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발 담그려 한다.

윤석열은 4월 19일 처음으로 군사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비록 '대규모 민간인 공격' 등 전제 조건들을 언급했지만, 기존의 '살상 무기 지원은 없다'는 입장을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 중요하다.

윤석열이 시사한 군사 지원은 당분간 무기 제공으로 진행될 테지만, 이는 단지 물건만 가는 게 아닐 것이다. 한국은 지금 나토군처럼 무기 사용을 위해 우크라이나군을 훈련시키게 될 것이다. 향후 전환 등에 따라서는 윤석열의 군사 지원은 파병으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

그동안에도 한국 정부는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우회적으로 무기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미국 지배자들은 한국이 전쟁을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를 바라 왔다. 이런 압박은 얼마 전 폭로된 윤석열 정부 고위 관료들의 대화도청 내용에도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자신이 미국 대중국·러시아 간 힘겨루기 싸움에서 미국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언급도 그 일환이다.

윤석열과 한국 대기업 등 지배자들에게 전쟁이 확대·지속되면서 계속되는 평범한 우크라이나인들의 희생은 안중에 없다. 한일 군사 협력 복원을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내친 것처럼 말이다.

윤석열의 선택은 곧장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 "분쟁에 확실하게 개입"하는 것이며 이를 "반(反)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푸틴의 최측근은 "러시아의 최신 무기



가 북한 손에 쥐어지는 것을 보면 한국인들이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다"며 "반은 만큼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윤석열은 대만 문제를 놓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고도 밝혔다. 이는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 가능성과, 유사시 주한미군의 개입까지 거론되는 첨예한 미·중 갈등 국면을 고려한다면 위험천만한 발언이다.

한반도 긴장 고조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의 노동자·서민에게 고통을 가중

시킨다. 직접적인 물리적 위협뿐 아니라, 턱없는 복지 예산을 갉아먹으며 계속해서 늘어가는 국방비만 봐도 그렇다.

제국주의 경쟁과 전쟁은 전 세계 평범한 사람들에게 재앙일 뿐이다.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반대해야 한다. 진정한 평화는 러시아에서든, 서방에서든, 한국에서든 어디에서나 자국 정부의 전쟁 지원이나 참여에 반대하는 대중적 반전운동을 통해 찾아올 것이다.

‘죽음의 세일즈맨’

최근 폭로된 미국 기밀문서에는 한국이 155밀리미터 포탄 33만 발을 폴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로 우회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한 내용이 있었다. 4월 17일 MBC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한국 진해항에서 독일 노르텐함항으로 군수 물자 이동이 있었다.

이미 지난해 11월에도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요청으로 155밀리미터 포탄 10만 발을 미국에 제공했다.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양의 탄약을 제공하는 미국이 자국의 재고를 한국산 포탄으로 채운 것이다.

한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해 2월 이후 무기 수출로 전쟁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깊숙이 발 담그고 있는 폴란드는 지난해에만 총 20조 원 규모의 무기를 한국으로부터 사들였다.

지난달 <로이터>는 한국의 K9 자주포 부품이 쓰인 폴란드의 크라프 자주포가 한국 정부의 승인 아래 우크라이나에 제공됐다고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한국은 폴란드에 기관총탄, 전차탄 등 탄약류 430만 발 이상을 수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살상 무기 지원은 없다"고 부인해 왔지만, 이미 한국산 무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청년 사병들을 죽이는데 사용되고 있다. 윤석열은 심지어 군수산업을 한국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고 치켜세우고 있다.

<노동자 연대> 정규호에는

서방 진영에 균열을 내고 있는 중국, 윤석열 정부의 위기,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배민 라이더·사무직 파업 예고, 윤석열의 마약과의 전쟁, 프랑스 반란 등 유익하고 따끈따끈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wspaper.org



전세 사기 피해자 잇따른 자살 정부가 책임지고 전세보증금 온전히 보상하라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세 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자 사회적으로 공분이 일고 있다. 모두 20~30대 청년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전세 사기로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 7000만~9000만 원 대부분을 날릴 상황에 처하고, 심각한 생활고를 겪어 왔다. 엄마에게 2만 원만 빌려 달라는 말을 남긴 20대 청년, 수도 요금을 못 내 단수 예고장이 붙은 30대 청년의 처지는 이들이 겪었을 고통을 짐작케 한다.

이들은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조만간 무일푼으로 쫓겨나가거나 전세금 대부분을 잃을 상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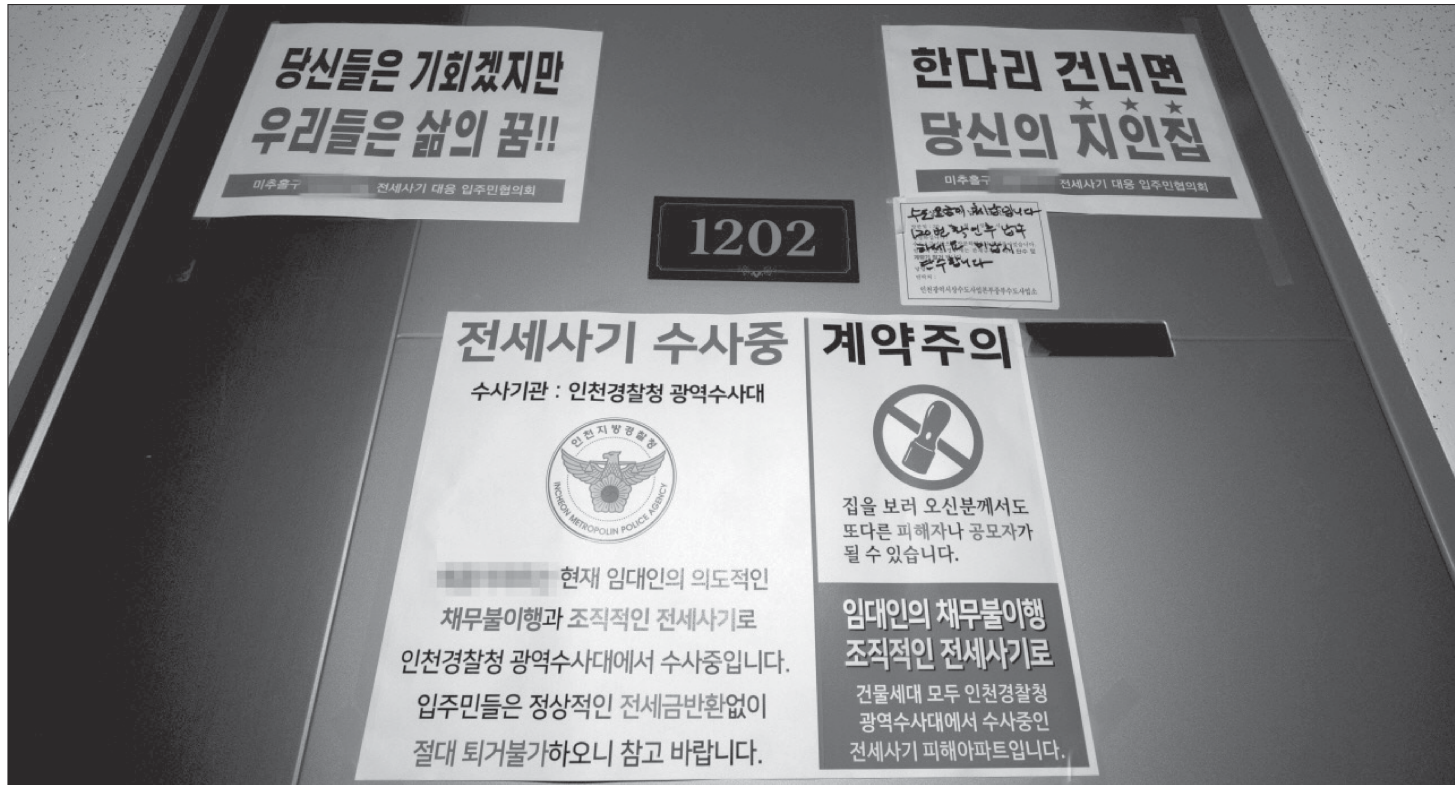
올해 2월 28일에 목숨을 끊은 30대 피해자는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며 “저의 이런 결정으로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이미 남긴 바 있다.

전세보증금 문제가 터져 나온 지 한참이 지났지만, 정부 대책은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다.

정부 대책은 피해자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경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거나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수천만 원의 피해를 본 사람더러 다시 수천만 원의 빚을 내라는 게 대책이 되겠는가. 임대주택도 현 거주지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실효성이 떨어졌다.

피해자들이 연이어 목숨을 끊자 정부는 부랴부랴 경매를 중단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경매 일정을 일시적으로 연기한 미봉책일 뿐이다. 게다가 정부가 금융업자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아 아직도 수백 채는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세보증금을 떼이지 않는 것인데, 정부는 이와



관련한 대책이 전혀 없다.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은 “개인 문제에 대해 세금을 투입해서 전액을 보상해 주기에는 법 제정 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문제는 개인 간에 벌어진 일이니 정부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적 재난

그러나 이 사태는 단지 개인 간의 사기 문제가 아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 거품이 커지면서 전셋값도 따라 올라 수많은 세입자들이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정부는 전세보증금을 보호할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갭투자’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계속 나왔지만, 정부는 세입자 대책 마련을 등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의 허점 등을 활용해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판을 친 것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말처럼 이 문제는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사회적 재난”이다.

반면, 정부는 올해 건설 원가보다 2억 원이나 비싼 가격에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 건설사 구제에 나선 바 있다. 전세 사기와 같은 서민층의 재산 손실 문제는 나 몰라라 하면서 말이다.

앞으로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문제는 더욱 확대될 공산이 크다. 지난해 공동주택 중에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깡통 주택’의 비율이 전국적으로 38퍼센트에 달했다.

민주당, 정의당 등은 정부가 나서 피해자들에게 먼저 전세금을 보상해 주고, 이후에 주택 경매나 임대주택 전환 등을 통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제안하

고 있다.(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물론 이는 정부 대책보다는 나은 것이지만, 보증금을 전액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해당 주택을 담보로 잡은 선순위 대출이 있는 등(적지 않은 경우 그렇다)의 상황에서는 이를 감안해 전세 보증금 보상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선순위 대출이 많으면 세입자는 여전히 큰 손해를 본다.

그래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정부 보상액이 전세보증금의 50퍼센트 이상은 돼야 한다는 내용을 발의 법안에 담았다. 그럼에도 전세보증금을 최대 50퍼센트까지 잃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노동자 등 서민층이다. 또,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자가 대폭 늘어났다. 정부가 책임지고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야 마땅하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join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olidarity.org/what-we-stand-for

▶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매주 온라인 토론회 방송
- 시사/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연속 토론
오늘의 세계를 이해하는 무기

② **마르크스주의 제국주의론**

4월 26일(수) 오후 8시

발제 **이원웅** (우크라이나 전쟁,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각축전) 공저자

유튜브 실시간 방송 노동자연대TV 검색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